

헝가리,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검토

□ FDI 감소에 대응하여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검토

- 지난해 24억 달러에 달했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금년에는 14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FDI 감소 추세는 지난 5월 출범한 사회당 정부에 새로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새 정부는 FDI 유치를 위한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기존에 제공된 인센티브 처리 역시 헝가리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음. EU의 규칙과 상치된 기존 인센티브는 EU로부터 폐기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임.

□ 기존 인센티브 처리 방향도 미확정

-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투자인센티브는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조업에 100억 포린트(약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 또는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며 고용창출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30억 포린트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세율 18%) 전액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동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Szentgotthard에 엔진공장을 설립한 Audi(독일)를 들 수 있음. 동사는 2009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돼 있으며, 금년에만 절세(節稅) 규모가 5,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임. 그밖에 미국의 GE와 IBM을 비롯해 Flextronics(싱가포르), Suzuki(일본) 등도 동 혜택을 누리고 있음.

- EU측 입장은 헝가리가 EU 가입과 동시에 동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이며, 헝가리 정부도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중단 하였음.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과거 아일랜드도 EU 가입 후 수년간 既 결정된 조세감면 조치를 적용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미 자격을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소멸시점인 2011년까지 조세감면 조치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매년 수천만 달러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은 불확실한 인센티브 지속 여부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헝가리 정부는 기득권 보장에 대해 확실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음. 다만, 헝가리 정부는 금년 가을에 있을 EU와의 협상에서 '경쟁'분야¹⁾에 관한 결론이 난 이후에야 방향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이나, 낙관적 이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 투자유치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추진

- FDI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는 헝가리 정부는 두 가지 새로운 투자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음. 다만, 현재 진행중인 EU와의 경쟁분야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첫 번째는 **개발세액공제(Development Tax Allowance: DTA)** 제도인데, 이는 前 시민당 정부에서 구상된 것으로 헝가리가 EU에 가입한 이후의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투자액 100억 포린트 이상이고 고용창출, 국내자재 구입 등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5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1) EU 가입을 위해 31개 분야를 EU의 법규체계(acquis communautaire)에 맞추어야 하는데, 경쟁분야(chapter6 competition policy)는 그중 하나임.

- 그밖에 투자액의 50% 이상은 자산 구입이나 확보를 위해 지출되어야 하며, EU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혜택은 지출비용의 50%를 넘지 않게 규정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구상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Smart Hungary**'로 명명된 것으로 이 또한 EU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도임. 동 제도는 저개발 지역 투자, 고용창출, 첨단기술과 같은 우대분야 투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공장 등 투자설비와 사회간접시설을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현금으로 보상함.
 -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도 직접 현금으로 보상함.
 - R&D 활동과 관련된 기업,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원자재의 50% 이상을 국산자재로 조달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건물 및 공장부지를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함.
-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위해 할당될 예산은 아직 미정이나, Csillag 경제·운송부 장관은 2003년 정부지원 수준은 8,200만~1억 2,200만 유로 수준에 이를 것이라 밝혔음.
- 그밖에 경제·운송부의 투자담당 실무자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정보접근 용이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인센티브 계산의 투명성 제고 등 제반 투자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FDI 위축에 대한 논란 가열

- 현 정부는 2003년 중 FDI 유치목표를 GDP의 10% 수준인 60억 유로로 설정하는 등 획기적인 FDI 증가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으나,

헝가리 정부의 희망과 달리 FDI 실적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금년 1/4분기 중 FDI 유입액은 전년동기의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문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음.

<표> FDI 유입 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f	2003f
유입액(억 달러)	23	22	20	20	17	24	14	19
GDP 대비(%)	5.0	4.7	4.3	4.1	3.7	4.7	2.2	2.5

자료: EIU, Viewswire, Sep. 2001 및 Aug. 2002.

- 첫째, FDI 감소 원인을 정치적 측면에서 찾는 주장이 있는데, 특히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치불안이 고조됨은 물론, 일부 정파(연임에 실패한 시민당 정부)의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주장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는 것임. 게다가 총선 이후에도 야당의 불법적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정치적 안정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경제지표의 악화와 FDI 경쟁력 저하도 정치적 측면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임. 前 정부는 지지도 만회를 위해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을 불러 FDI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러나 現 정부도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하는愚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음.
- 둘째, FDI 감소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찾는 주장도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헝가리도 타국과 마찬가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또한 FDI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함.

- 마지막으로 헝가리의 체제전환 단계에 맞는 구조조정 및 산업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이 FDI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즉, 1990년 대 중반 공기업을 대거 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막대한 FDI 유입이 있었으나, 최근 수년간 조세 및 연금제도 개혁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 인프라 확충, 교육개발 등의 산업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외국인기업의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끌어내지 못하고 경쟁국과의 FDI 유치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임.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